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 21장 살인하지 말지니라

『산상설교』 상권 제21장, 인쇄 279~29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21~26

> ❓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욕도 참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나?**

##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단락이 마태복음 5:20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풀어 주는 여섯 실례 가운데 첫째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어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를 두 가지로 깎아 냈다고 지적한다. 실제 살인만 금지한 것으로 줄였고, 형벌도 지방법정의 처벌로 한정했다. 그 결과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세 원칙으로 바로 세우신다. 첫째, 조문만이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 그러니 까닭 없는 분노, 멸시하는 말, 욕설도 살인이다. 둘째, 금지만 지키는 소극적 태도로는 부족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셋째, 이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급하다. 설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복음으로 끝난다.

## 📜 절별 정리

### 📜 1. 여섯 실례의 자리 — 모세와 예수의 대조가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5:21~48 전체를 읽는 방법부터 짚는다. 여섯 실례는 모두 “옛 사람에게 말한바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같은 틀을 따른다. 이 틀은 모세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을 맞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러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섯 실례는 이 놀라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주는 해설이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산상설교 나머지 부분을 읽는 열쇠이기도 하다.

1. 21~48절은 5:20의 해설이다
2. 대조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해석이다
3.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4. 여섯 실례는 모두 같은 틀로 시작한다

> **마태복음 5:17**
>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출발점
>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마태복음 5:20**
> 여섯 실례가 풀어 주는 중심 선언
>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5:21~22**
> 첫 실례의 틀: “들었으나 … 나는 이르노니”
>
>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 2. 바리새인은 계명을 어떻게 깎아 냈나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바로 붙여 놓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율법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로이드 존스의 답은 이렇다. 문제는 두 문장을 나란히 붙이는 방식으로 계명의 뜻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좁혔다는 데 있다. 두 번째 잘못은 계명에 딸린 형벌을 치안판사, 곧 지방법정의 처벌로 한정한 것이다. 여기서 '심판'은 지방법정을 뜻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계명은 “살인하면 법정에 끌려간다”는 법조문 하나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만족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을 흉내만 낸 '조작'이라고 보셨다. 자기 속이 편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울타리를 친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사울(바울)과 부자 청년도 이런 해석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 율법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정의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의롭다고 믿을 수 있다.

1. 계명을 '실제 살인'으로 좁혔다
2. 형벌을 사람의 법정으로 한정했다
3. 하나님의 심판은 빠져 버렸다
4. 바울과 부자 청년도 같은 착각을 했다
5. 우리도 율법을 쉽게 깎아 낸다

> **출애굽기 20:13**
> 원래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
> 살인하지 말라

> **마태복음 5:21**
> 바리새인식 해석: 살인하면 법정 심판
>
>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빌립보서 3:6**
> 회심 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김

**마태복음 19:20**

부자 청년의 “이 모든 것을 지켰다”는 착각

>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 📜 3. 첫째 원칙: 조문이 아니라 영 — 분노·멸시·욕설도 살인이다

예수님의 첫째 원칙은 율법의 문자(조문)만이 아니라 그 속뜻(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획적 살인만 금하지 않는다. 형제에게 까닭 없이 품는 분노도 같은 심판 아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일부 사본에 '까닭 없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도 언급한다. 본문 비평으로는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이 있어도 엄청난 요구이고, 없으면 더 엄청난 요구가 된다. 예수님은 거기서 단계를 더 올리신다. '라가'(쓸모없는 놈)라는 멸시의 말, '미련한 놈'이라는 욕설도 마음속 증오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19에서 악한 생각을 살인과 나란히 두셨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다툼, 원한, 속임도 같은 목록에 올리셨다. 멸시와 조롱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정신이다. 우리는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을 파괴한다. 명성을 무너뜨리고, 비판을 속삭이고, 일부러 허물을 찾아 남의 신뢰를 흔든다. 살인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혼을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리려는 모든 일이다. 그러므로 산상설교가 오늘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는 생각은 무섭고 위험한 착각이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밑바닥까지 파고든다.

1. 까닭 없는 분노도 살인이다
2. '라가'는 멸시, '미련한 놈'은 욕설이다
3.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살인과 함께 두셨다
4. 평판 파괴와 험담도 사람을 죽인다
5. 산상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5:19**

악한 생각을 살인과 같은 목록에 둔 근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 📜 4. 모든 분노가 죄인가 — 의로운 분노와 죄된 분노

그러면 성내는 일은 언제나 나쁜가?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맹인', '외식하는 자들', '우맹이요 맹인들'이라 하시지 않았나? 제자들에게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하셨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를 선포하셨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 난점이 없다고 답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메시아이자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선언하신 것이다. 상대는 복음과 모든 기회를 거부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거짓 종교와,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기의를 고발하신 것이다. 이른바 저주 시편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원수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그래서 선은 이렇게 그어진다. 우리의 분노는 죄를 향해서만 나타나야 한다. 죄인에게는 슬픔과 동정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은 불의에 진노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질수록 죄에 더 분노하게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바로 이 뜻이다. 그러나 사람과 그가 한 일을 구별해야 한다. 사람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1. 예수님의 책망은 재판장의 판결이다
2. 저주 시편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3. 분노는 죄를 향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

**5.**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마태복음 23:17**

“우맹이요 맹인들이여” — 반론에 나온 강한 표현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누가복음 24:25**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또 다른 강한 표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시편 97:10**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에베소서 4:26**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향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히브리서 12:29**

하나님은 죄에 대해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의 분노는 죄에 대해서만 나타내야 합니다."

### 📜 5. 둘째 원칙: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 화목 — 예물을 두고 가라

둘째 원칙은 태도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살인 안 했고, 불친절한 말도 입 밖에 안 냈으니 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도,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신다. 문제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실제로 움직여서, 영에서조차 형제와 막힌 것이 없는 데까지 가야 한다. 23~24절이 겨냥하는 미묘한 위험이 있다. 선한 일로 악을 상쇄해서 도덕적 잘못을 갚으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의 전문가였다. 성전 출석과 율법의 세부는 꼼꼼히 지키면서 이웃은 멸시하고 정죄했다. 그리고 "나는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말로 양심의 아픔을 피했다. 우리도 "나는 이만큼 희생하고 사역에 바쁘다"는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책을 덮는다.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신다. 예배하다가도 형제를 넘어지게 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먼저 가서 바로잡아야 한다. 마음에 죄를 품은 채 드리는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다. 로이드 존스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을 예로 든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을 제물로 남긴 채 예배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했다. 로이드 존스는 자신도 사울을 너무 잘 알기에 그가 측은하다고 고백한다.

1.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화목해야 한다
2. 선행으로 악행을 덮을 수는 없다
3. 사역의 바쁨이 가책을 가릴 수 있다
4. 관계가 막힌 예배는 가치가 없다
5.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 **마태복음 5:23~24**
>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복음 16:15**

사람 앞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시편 66:18**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3:20**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다 아신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5:2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 사울의 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올바로 되기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원칙은 긴박성이다. 25~26절의 고발하는 자, 재판관, 옥리 비유는 이 일을 한순간도 미루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법정을 다스리는 재판장이시고, 그분의 법은 절대적이다. 그분은 마지막 한 푼까지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채로 영원을 향해 걷는 중이다. 그러니 율법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느끼고, 정죄를 느끼는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이 놀랍도록 쉽다며 감사한다. 그 조건은 이렇다.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한다. 상대가 나를 들볶았어도 자기변호와 자기의를 멈춘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한다. 바보가 될 만큼 겸손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다. 원수였던 우리 대신 아들이 와서 자기 몸을 내어 주고 청구서를 지워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는 “급히 사화하라, 지체하지 말라”는 초대로 끝난다.

1. 화목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2. 하나님은 절대적 법의 재판장이시다
3. 우리는 마지막 때를 모른다
4. 조건은 고백, 자기변호 중단, 겸손이다
5. 빚은 아들의 십자가로 다 갚아졌다

> **마태복음 5:25~26**
> 길 위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는 긴박성
>
>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 **로마서 5:10**
> 원수였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됨(설교 결론의 뜻)
>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입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을 겉으로 지키기 쉬운 규칙으로 줄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

**율법의 조문과 영**
조문은 계명의 글자, 영은 그 글자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속뜻이다.

**재가(裁可)**
계명을 어겼을 때 따르는 처벌 규정. 바리새인은 이것을 사람의 법정 처벌로만 좁혔다.

**라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의 아람어 멸시 표현.

**본문 비평**
여러 성경 사본을 비교해 원래 본문을 확인하는 연구. '까닭 없이'가 일부 사본에 없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기의(自己義)**
하나님의 은혜 대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태도.

**저주 시편**
원수에게 심판을 구하는 시편들. 로이드 존스는 이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원수에게 내린 심판 선언으로 본다.

**사화(私和)**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살인하지 말라”는 실제 살인만이 아니라 까닭 없는 분노, 멸시, 욕설, 험담까지 겨냥한다.
- 분노는 죄를 향해서만 정당하다. 사람에게는 동정을 품어야 한다.
- 형제와 막힌 채 드리는 예배는 무가치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 화목은 지금 해야 한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 고백하고 겸손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로 값없이 용서를 주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